

광주FC, 난적 포항 잡고 3연승 간다

17일 첫 원정...역대 전적 우위·상승세 '포항' 상대 1위 수성 나서 '무등산 호랑이' 가브리엘·대표팀 소집 앞둔 정호연 등 활약 기대

광주FC가 '난적' 포항스틸러스 안방에서 3연승을 노린다.

K리그1 1위 광주가 17일 오후 2시 포항스틸야드로 가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시즌 첫 원정길에 나선 광주는 기세를 이어 3연승과 함께 선두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우승후보' FC서울과의 개막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정효봉'을 선보이면서 2-0 승리를 낚았던 광주는 지난 2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는 4-2로 이기며, 연승에 성공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을 하고도 경기를 뒤집으며 승리를 만든 광주는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눈길 끄는 출발은 했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원정 경기인 데다 상대 포항도 만만치 않다.

포항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HD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1패를 기록했지만, 앞선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는 3-1 승리를 만들었다. 새로 포항 지휘봉을 든 박태하 감독의 첫승.

위명업을 끝내고 상승세를 탄 포항은 역대 전적에서도 광주에 앞선다.

통산 맞대결에서 포항은 16승 8무 2패로 광주에 유독 강했다. 광주가 3위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해에도 두 팀은 1승 2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광주는 '무등산 호랑이' 가브리엘을 앞세워 포항 사냥에 나선다.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은 두 경기만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떠올랐다.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K리그에 첫 선을 보인 그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장식했고, 앞선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에 성공하면서 1-2라운드 연속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1라운드에서는 MVP까지 차지했다.

원발잡이인 가브리엘은 오른발까지 잘 활용하면서 오른발과 왼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또 뛰어난 점프력으로 머리로도 골을 만들어냈다.

가브리엘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파워로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고 있다. 뛰어난 피지컬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상대의 공을 뺏고, 광주의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유의 잇박자 드리블과 뛰어난 위치 선정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까지 겸비하면서 상대를 흔들고 있다.

올 시즌에도 중원을 굳게 지키고 있는 정호연의 활약도 눈부시다.

앞선 강원전에서 절묘한 크로스로 가브리엘의 헤더골을 도우면서 다시 광주의 리드를 가져온 정호연은 키패스로 공격의 시작점 역할도 하고 있다.

쾌조의 컨디션으로 광주 연승을 견인한 정호연은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의 선택을 받아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나선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 정호연이 대표팀 소집에 앞서 선보일 플레이도 이번 경기 관심사다.

광주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르지를 경계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K리그2 충북청주FC에서 13골 2도움을 기록했다.

박태하 감독이 부임과 함께 불러들인 조르지는



광주FC가 17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리는 K리그1 2024 3라운드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강원FC와의 2라운드 홈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은 최경록(가운데)과 가브리엘이 환호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앞선 대구전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포항 공격 핵심으로 떠올랐다.

광주를 잘 아는 김종우도 주의해야 한다.

광주에서 이정호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김종우는 광주 전술과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대구전에서 시즌 첫 경기에 나선 김종우는 팀의 왜기골도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강원전에서 전반 위기를 딛고 연승을 만든 광주가 '난적' 포항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시선이 포항스틸야드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2차 예선 '이강인 태국전' 입장권 전석 매진

붉은악마 "응원 하겠다" 공식 표명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입장권이 매진됐다.

한국 축구를 둘러싼 각종 논란 속 '응원 거부' 움직임이 없었으나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누르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축구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1일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소 표가 나오지 않으면 별도 입장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태국전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ick오프한다.

이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임시 사령탑' 황 감독 체제로 재편한 국가대표팀이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다.

황 감독은 지난 11일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태국전에 나설 국가대표 23인 명단에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아컵에서 손흥민과 '허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크게 비판받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포함했다.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당사자인 두 선수 '축구'로 만회할 기회를 줬다.

아시아컵 직후 탁구 게이트본 아니라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격화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태국전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이강인이 요르단 모하마드 이부 하쉬쉬와의 경합을 파울로 선언한 주심에게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어필하고 있다.

팅 빈 관중석을 통해 축구협회에 항의의 뜻을 드러내자는 취지였으나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는 응원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붉은악마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작) 존재의 본질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보이콧을 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홍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태국전에 대비한 소집 훈련에 들어간다. 21일 태국과 첫 경기를 마친 후 22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 26일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C조 4차전이 태국과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손흥민, 3경기 연속 득점포 쏘까

17일 풀럼FC와 격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최근 기세가 매서운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국가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3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한다.

토트넘은 17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리는 2023-2024 EPL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풀럼FC와 격돌한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대표팀 소집 전 손흥민의 마지막 일정이다. 풀럼전을 마치면 손흥민은 귀국해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황선홍호'로 재편된 대표팀은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치른다.

'탁구 게이트'부터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까지 아시아컵 이후 한국 축구가 각종 악재로 흔들리고 있지만 간판급 선수인 손흥민은 최근 그라운드에서 몰론 경기력을 보였다.

직전 2경기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 3일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7라운드 후반 43분 시즌 13호 골을 터뜨려 3-1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28라운드 애스턴 빌라전에서는 1골 2도움을 폭발했다.

이 경기에서 4-0 완승을 이끈 손흥민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이주의 팀'에 선정되는 등 현지에서도 주가를 높였다.

손흥민이 풀럼전에서 15호 골을 터뜨린다면 올 시즌 들어 리그에서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게 된다.

득점왕에 오른 2021-2022시즌 3경기 이상 연속골을 세 차례 기록했던 손흥민이지만 지난 시즌

과 올 시즌에는 한 번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1골만 더 추가하면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종 5위가 된다. 현재 159골을 넣어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와 공동 5위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도 16일 오후 11시 30분에 kick오프하는 다름슈타트 98(이상 독일)과 분데스리가 26라운드 경기 출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김민재가 얼마나 떨지는 미지수다. 전반기 뮌헨 수비진의 줄부상 속에 불박이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듯했던 김민재는 최근 토마스 투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김민재는 지난 10일 마인츠를 8-1로 대파한 홈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고, 후반 30분에 토트넘에서 이적해온 에릭 디아와 교체 투입됐다.

라치오(이탈리아)와 UCL 16강 2차전(뮌헨 3-0 승)에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것이다.

최근 투헬 감독은 다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출전 시간을 줄였고, 마테이스 데리흐트와 디아어 조합을 중용하고 있다.

황선홍 감독이 선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도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 태국전을 준비한다.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PSG)은 18일 오전 4시 45분 몽펠리에와 프랑스 리그1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준비한다.

스타드 랭스와 25라운드, OGC 니스와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8강전 모두 선발로 나선 이강인이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할지가 관전포인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파묘
3관	마담 웹
4관	파묘, [위드키즈]브래드 피터: 셉템 인 베이커리타운
5관	밤 말라: 원 러브, 원 앤 온리
6관	파묘
9관	툰: 파트2, 윙카
7관 씨네커피	메이 디센버, 원 앤 온리, 파스트 라이브즈
8관 씨네커피	랜드 오브 매드, 가여운 것들, [위드키즈]용감한 돌고래 벨루와 바닷속 친구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매주 토-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상설공연

2024년 3월

2월 22일 ~ 3월 31일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유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